

[고2 전제(형)2] II -2-(2) 고려 시대의 문학

# 정석가(鄭石歌)

## 작자미상

### <핵심 정리>

갈래 : 고려 가요  
 성격 : 서정적, 민요적  
 형식 : 전 6연의 분연체  
 표현 : 과장법, 역설법, 반어법  
 운율 : 3음보, 3·3·4조  
 제재 : 임에 대한 사랑  
 주제 : ·임(임금)에 대한 영원한 사랑  
       ·태평 성대의 기운  
 특징 : ·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하는 데 반해,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.  
       ·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기발한 발상이 돋보임.  
 출전 : 『악장가사』, 『시용향약보』, 『악학편고』

◎ ‘서경별곡’과의 유사성을 알자!  
 ‘정석가’의 제6연은 ‘서경별곡(西京別曲)’의 제2연과 동일한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다. 이처럼 같은 표현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, 이 구절이 이별의 정서를 노래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당시 널리 유행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. 다른 관점으로는 구전(口傳)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·증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.

### <어휘 풀이>

- ㉠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. /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. / 이 좋은 태평 성대에 놀고 싶습니다.
- ㉡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/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/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.  
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 /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 /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.
- ㉢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. /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. / (그 꽃을) 바위 위에 점을 붙입니다.  
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/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/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.
- ㉣ 무쇠로 철릭(무관의 제복)을 재단하여 /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/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.  
 그 옷이 다 헐어야만 / 그 옷이 다 헐어야만 /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.
- ㉤ 무쇠로 큰 소(황소)를 만들어서 /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/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.  
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다 먹어야만 /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다 먹어야만 /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.
- ㉥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/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/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?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/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/ (임에 대한) 믿음 이 끊어지겠습니까?

### <이해와 감상>

이 노래는 태평 성대에 대한 기원과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.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영원을 역설적,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.  
 서사에서 태평 성대를 기원하고 있으며, 2연에서 5연까지는 소재만 달리 할

뿐,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있다. 즉, 제2연에서는 ‘구운 밤’, 제3연에서는 ‘옥 연꽃’, 제4연에서는 ‘무쇠 옷’, 제5연에서는 ‘무쇠 소’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놓고 영원히 임과는 헤어질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.

이 노래에 등장하는 ‘임’은 ‘임금’, 혹은 ‘연인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임금으로 볼 경우는, 태평 성대를 바라는 신하나 백성들이 임금에게 바치는 축수(祝壽) 송축가(頌祝歌)가 된다. 한편, 임을 연인으로 볼 경우,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연정가(戀情歌)가 된다.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애원 또는 향락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데 반해, 이 노래는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, 완곡한 방법으로 시상을 표현한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. 이로 보아, 이 작품은 역설 논리의 표현을 통해 임과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영원의 절실성이 생생하게 표현된 노래로 볼 수 있다.

◎ ‘정석가’의 표현상의 특징 - 2연에서 5연까지 반복되고 있는 역설적 표현

제재	가정	행위	현실적 상황	상 소망
구운 밤	싹이 나면	임과 이별하겠다.	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.	임과 이별하지 않겠다.
옥 연꽃	꽃이 피면			
무쇠 옷	달아서 해지면	임과 이별하겠다.	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.	임과 이별하지 않겠다.
무쇠 소	쇠풀을 먹으면			

### <작품 분석>

◎ ‘정석가’의 구성

서사(1연)	태평 성대의 희구
본사(2연~5연)	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기원
결사(6연)	비유를 통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의 다짐

◎ 오관산요(五冠山謠)

‘정석가’의 구성 방식과 같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영원하기를 비는 노래로 효자인 문충(文忠)이 지었다는 ‘오관산요(五冠山謠)’가 있다. 문충은 모친이 늙는 것을 개탄하여 이 노래를 지었는데, 이제현이 이를 한역시로 옮겨 전해 온다.

나무 도막을 당닭을 깎아  
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얹히고  
 이 새가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  
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.

### <단원 평가>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딩아 돌하 ㉠당금(當今)에 계상이다.  
 딩아 돌하 당금(當今)에 계상이다.  
 선왕성대(先王聖代)에 노니오와지이다.

삭삭기 세몰애 ㉡별혜 나는  
 삭삭기 세몰애 별혜 나는  
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.  
 그 밤이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
 그 밤이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
 유덕(有德)하신 님을 여히오와지이다.

옥(玉)으로 ㉢련(蓮)스고줄 ㉣사교이다.  
 옥(玉)으로 련(蓮)스고줄 사교이다.

바회 우회 접두(接柱)후요이다.  
 그 고지 ①삼동(三洞)이 뛰거시아  
 그 고지 삼동(三洞)이 뛰거시아  
 유덕(有德)후신 님 ②여히우와지이다.

므쇠로 **털릭**을 말아 나눈  
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눈  
 털흐(鐵絲)로 주름 바고이다.  
 그 오시 다 혈어시아  
 ①**그 오시 다 혈어시아**  
 유덕(有德)후신 님 여히우와지이다.

므쇠로 **한쇼**를 디어다가  
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 
 털슈산(鐵樹山)애 노호이다.  
 그 쇠 털초(鐵草)를 머거아  
 그 쇠 털초(鐵草)를 머거아  
 유덕(有德)후신 님 여히우와지이다.

구스리 **바회**에 디신들  
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 
 ③**긴햇든 그츠리잇가**  
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 
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 
 신(信)잇든 그츠리잇가.

1. 위 글의 주된 발상과 유사한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?

- ① 임이여,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(金)결입니다.  
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음소서.
- ② 마을 사람들이 옳은 일 하자스라.  
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못 못하면  
 마소를 갖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를까.
- ③ 오리 짧은 다리 학의 다리 되도록에.  
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에.  
 향복 무강(享福無疆)하사 억만세를 누리소서.
- ④ 도련님 이제 가면 언제 오려 하오. 태산중악 만장봉이 모진 광풍에 쓰러지거든 오려 하오. 십리 사장 세모래가 정 맞거든 오려하오. 금강산 상상봉에 물 밀어 배 띄워 평지 되거든 오려 하오.
- ⑤ 나무 도막을 당닭을 깎아  
 찢가락으로 집어 먹에 얹히고  
 이 닭이 꼬끼요 하고 때를 알리면  
 어머니 얼굴은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늡으시리.

2. 이 노래[A]와 [보기]의 노래[B]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**<보기>**

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/ 긴햇썬 아즐가 긴햇썬 그츠리잇가 나눈 / 즘은 히를 아즐가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/ 신(信)잇든 아즐가 신(信)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 
 대동강(大同江) 아즐가 대동강(大同江) 너븐디 몰라셔 / 빅 내어

아즐가 빅 내어 노후다 샤공아 /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/ 널 빅에 아즐가 널 빅에 연준다 샤공아 / 대동강(大同江) 아즐가 대동강(大同江) 건넌편 고즐여 / 빅 타 들면 아즐가 빅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눈

- '서경별곡'

- ① A와 B의 화자 모두 의지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.
- ② A와 B의 화자 모두 임과의 인연이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.
- ③ A와 B의 화자 모두 우리 고유한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.
- ④ A의 화자는 현재 임과 함께 있고, B의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하고 있는 상태이다.
- ⑤ A의 화자는 이별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, B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.

3. 다음 <보기>는 효자 문충(文忠)이 지었다는 “오관산요(五冠山謠)”를 의역한 것이다. 이 노래와 “정석가”의 표현상 공통점을 기술하시오.

**<보기>**

나무도막으로 당닭을 깎아 만들어  
 벽의 걸이개를 올려 얹히고  
 이 닭이 꼬끼요 하고 때를 알리면  
 어머니 얼굴이 서산에 기우는 해처럼 늡으시리라.

4. 다음은 <정석가>에 대한 수행 평가 과제로 제출하려는 보고서이다. 보고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**<보기>**

보고서	
작성자	○학년 ○반 홍경임
작성 일시	2006년 ○월 ○일
제목	「약장가사」에 전해지는 고려 가요 <정석가>에 대하여
형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려 가요의 특징인 여음구를 가지고 있다. …①</li> <li>• 모두 6연으로 구성된 분연체 형식의 작품이다. …②</li> </ul>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. …③</li> <li>• 이 노래는 내용상 1연을 서사, 2~5연을 본사, 6연을 결사로 보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. …④</li> <li>• 6연에는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인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시적 화자의 영원이 잘 드러나 있다. …⑤</li> </ul>

5.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소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구은 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련(蓮)사고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털릭
- ④ 한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바회

6. 문학의 밤 행사에서 <정석가>를 낭송할 때, 그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경석 :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훈계하는 어조가 좋을 것 같아.
- ② 구현 : 내면적인 갈등을 토로하는 비통한 어조로 낭송해야 해.
- ③ 민표 : 임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어조로 낭송해야 해.
- ④ 현규 :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탄식의 어조가 좋지 않을까?
- ⑤ 주영 : 지난날의 일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반성적 어조가 좋을 것 같아.

7. 이 시와 <보기>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/ 부리고 가시리잇고 눈 날리는 엇디 살  
라하고 / 부리고 가시리잇고 눈 잡수와 두어리마는 / 선후면 아  
니 올세라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/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  
는

- 작자 미상, <가시리>

- ① 이 시에는 임에 대한 원망이, <보기>에서는 임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.
- ② 이 시에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이 그려지는 반면, <보기>에서는 임과의 재회를 포기하고 있다.
- ③ 이 시에는 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형성화된 반면, <보기>에서는 임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지 않는다.
- ④ 이 시에는 자신이 떳떳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, <보기>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다.
- ⑤ 이 시에는 자신의 사랑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, <보기>에서는 임을 위해 자신의 소망을 체념하려 한다.

8. 이 시와 유사한 발상에 의해 표현된 구절이 쓰이지 않은 것은?

- 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/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- <애국가>
- ② 여승은 함창하고 절을 했다. / 가취치의 내용새가 났다. /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. /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. - 백석, <여승>
- ③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긴 다리로 될 때까지 / 검은 까마귀가 하얀 백로가 될 때까지 / 끝없이 복을 누리소서, 억만 년 영원히 복을 누리소서. - 김구
- ④ 임이여,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(金)걸입니다. / 뽕나무 뿌리가 산호(珊瑚)가 되도록 천국(天國)의 사랑을 받음소서. / 임이여, 사랑이여, 아침 별의 첫결음이어. - 한용운, <찬송>
- ⑤ 나무토막으로 당땀을 짖아 /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히고 / 이 새가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/ 어머니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. - 이제현, <오관산요>

9. 이 시와 <보기>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元淳文(원순문) 仁老詩(인노시) 公老四六(공노소륙)  
李正言(니정언) 陳翰林(딘한림) 雙韻走筆(쌍운주필)  
沖基對策(통기대척) 光鈞經義(광균경의) 良鏡詩賦(량경시부)  
위 試場(시당)스 景(경) 그 엇더히니잇고.

葉(엽)琴學士(금학사)의 玉筍門生(옥순문생) 琴學士(금학사)의 玉筍門生(옥순문생)  
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.

- 한림 제유, <한림별곡>

- ① 향락적인 생활 태도가 나타난다.
- ② 3음보의 율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.
- ③ 노래의 주체가 상류 계층의 신분이다.
- ④ 객관적인 사물을 열거하며 그 느낌을 표현하였다.
- 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기묘한 표현이 돋보인다.

10. <보기>의 시적 화자를 A, 이 시의 시적 화자를 B라 할 때, A와 B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냐  
이시라 후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여  
보내고 그리는 정(情)은 나도 몰라 후노라

- 황진이

- ① A : 임을 떠나보내려니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. 임이 떠나고 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
- ② B :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임을 붙잡아 보십시오. 그러면 임께서 마음을 돌리실지도 모릅니다.
- ③ A :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떠나지 말라고 붙잡지는 못하겠습니다.
- ④ B : 그래도 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보내지 마십시오. 보내고 나면 후회하실 겁니다. 저도 이렇게까지 후회할 줄은 몰랐습니다.
- ⑤ A :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와 같으시군요. 저는 임이 다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.

11. <정석가>와 <서경별곡>을 중심으로 고려 가요 전승의 특성을 토론하였다. <보기>의 내용을 참고할 때,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현재 전하는 고려 속요를 고려의 평민층이 부른 노래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. 원래 평민층에서 구비 전승되던 노래가 궁중의 속악 가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형식이나 내용이 궁중 음악에 맞게 첨삭되거나 수정되었을 것이기에 원형 그대로의 노래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.

- ① 형규 : <정석가>에 사용된 후렴구도 궁중 음악에서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로서 첨가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.
- ② 서연 : 동일한 노랫말이 두 노래에 모두 쓰인다는 것은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이 노랫말이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.
- ③ 찬규 : <서경별곡>의 2연과 3연은 서로 상이한 내용을 노래한다는 점을 보면 궁중 음악의 수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노래가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.
- ④ 재범 : <정석가>의 1연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적인 내용인데 다른 연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면 궁중 음악으로 편입될 때 삽입된

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.

- ⑤ 민표 : <정석가>의 6연에서 '임과의 이별'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도 평민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.

12. 다음 대중 가요의 가사 중에서 이 시와 시적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은?

- ① 다 돌려 놔. 너를 만나기 전의 내 모습으로.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. 바랄게. 다음번에 너 누굴 사랑한다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.
- ② 차라리 너의 모든 기억 속에서 나를 깨끗이 잊어 주겠니. 너만을 사랑한 줄 알았어. 난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. 하지만 이해해 줘. 변함없는 건 모두 변한다는 것뿐이야.
- ③ 이제는 내 얘기를 들어 봐. 한 번쯤 내 입장을 이해해. 아직은 누군가에게 구속돼 얽매이긴 싫어. 정말로 사랑한 거 사실이야. 하지만 이전 자유롭고 싶어.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엔 난 아직 어려.
- ④ 내가 네게 해 줄 수 있는 건 변함없는 사랑뿐이야. 언제나 넌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지. 너와 함께 한 시간,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. 밤새도록 기대오는 너만을 느끼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.
- ⑤ 기억하렴. 나의 서글픈 모습.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는 날들. 이렇게 후회하는 내 모습이 나도 어리석어 보여. 어디선가 쉽게 너 말하겠지. 세상에 모든 여잔 너무 쉽다고. 상처를 받은 나의 맘 모른 채 넌 웃고 있지, 후회 하게 될 거야.

13.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.
- ② 무생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.
- ③ 상황을 과장적으로 표현하여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.
- ④ 설의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변치 않을 믿음을 보여 주고 있다.
- ⑤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이라는 역설을 통해 인상적인 내용이 되게 하고 있다.

14. <정석가>의 마지막 연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?

- ① 임과의 영원한 이별
- ② 임이 없는 외로움의 토로
- ③ 임과의 영원한 사랑 다짐
- ④ 임과 함께하는 태평성대 회귀
- ⑤ 찾아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

15. 이 시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한자 성어는?

- ① 결초보은(結草報恩)
- ② 흥진비래(興盡悲來)
- ③ 일편단심(一片丹心)
- ④ 사필귀정(事必歸正)
- ⑤ 만시지탄(晩時之歎)

16. ㉠~㉥의 현대어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 당금(當今)에 : 지금에
- ② ㉡ 별해 : 벼랑에
- ③ ㉢ 사교이다 : 새깁니다
- ④ ㉣ 삼동(三同)이 : 세 번이나
- ⑤ ㉤ 여허오와지이다. : 이별하고 싶습니다.

17. 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임과의 이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② 하늘의 뜻이라면 임과 이별할 수도 있다는 담담한 심정을 진술한 것이다.
- ③ '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네 소원을 들어 주마.'와 유사한 형태의 발화이다.
- ④ 임과 이별은 하겠지만 임의 높은 덕은 잊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.
- ⑤ 덕이 많으신 임이라 절대로 시적 화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다.

18. ㉡과 문장의 기능이 다른 하나는?

- ① 이 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?
- ②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?
- ③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?
- ④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는가?
- ⑤ 가야 할 때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?

19.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는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.

20. 김소월의 <진달래꽃>과 이 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.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[가]  
 딩아 돌하 당금(當今)에 계상이다.  
 딩아 돌하 당금(當今)에 계상이다.  
 선왕성티(先王聖代)에 노니오와지이다.

[나]  
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눈  
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눈  
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.  
 ㉠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
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

[다]



26. 2연에서 시상을 전개한 발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?

- ① 뭇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뎌,  
자시느 窓(창)뵈고 심거 두고 보쇼셔.
- ② 저 건너 검은티탄 바위 釘(정)대고 두드려 내어  
털 뜯게 하고 뿔 박아 만들어 두리라 검은 암소를 우리 임 날 이별하고  
가오실 제 거꾸로 태워 보내리라.
- ③ 冬至(동지)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,  
春風(춘풍)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,  
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.
- ④ 미암이 림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,  
山菜(산채)를 림다는가 薄酒(박주)를 쓰다는가.
- ⑤ 눈 마즈 휘여진 뒤를 뉘라셔 굶다렸고.  
구불 筋(질)이면 눈 속이 프를쇼냐.  
아마도 歲寒孤節(세한고절)은 너써인가 嘯노라.

## <정답 및 해설>

- 1) ② (해) 위 글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제시하는 발상을 보이고 있다. ②번에서는 이러한 발상이 보이지 않는다.
- 2) ③ (해) 이 글(A)은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. 반면, <보기>의 '서경별곡'(B)은 질투와 원망의 정서도 포함되어 있다.
- 3)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, 그것이 실현되면 대상 인물에 변화가 오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4) ⑤ (해) 6연 또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.
- 5) ⑤ (해) '밤, 연꽃, 옷(털릭), 소'는 모두 각 연의 중심 소재로 불가능한 상황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들이다. 반면 '바위'는 '구슬'이라는 사랑을 부서지게 만드는 시련을 상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.
- 6) ③ (해) <정석가>의 어조는 천 년을 헤어져 있어도 변치 않을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확신시키는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.
- 7) ⑤ (해) <정석가>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,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. 반면 <가시리>의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이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임을 보내고 있다.
- 8) ② (해) 이 시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. ②는 비유의 표현을 통해 비극적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을 뿐, 불가능한 상황을 상징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
- 9) ② (해) <정석가>와 <한림별곡>은 모두 고려 시대의 노래로,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한다. ①, ③, ④는 <한림별곡>에, ⑤는 <정석가>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.
- 10) ④ (해) <보기>의 시적 화자는 임을 보내놓고 난 후 후회하고 있다. 이에 반해 <정석가>의 시적 화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. 따라서 ④와 같이 시적 화자 역시 이별을 받아들인 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- 11) ⑤ (해) <보기>의 내용을 참고할 때 고려 가요는 전승되다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에 맞게 첨삭되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. ①~④의 토론 내용은 적절하나 ⑤의 평민 표현의 여부는 <보기>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.
- 12) ④ (해) 정석가>에는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변치 않는 강렬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.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④이다.
- 13) ② (해) 이 시에는 과장법, 반복법, 반어와 역설이 사용되고 있으며, 마지막 연에서 설의적 의문을 사용함으로써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. 그러나 무생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의인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.
- 14) ③ (해) 구슬과 끈으로 대변되는 시적 화자의 사랑은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③이 적절하다.
- 15) ③ (해) 이 시의 주제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다. 일편단심(一片丹心)은 '한 조각의 붉은 마음'이라는 뜻으로 '변치 않는 창된 마음'을 가리키는 말이다.
- 16) ④ (해) '삼동'은 그 해석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. '한겨울[三冬]'이라는 견해와 '세 묶음'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. 하지만 '세 번'과는 무관하다.
- 17) ③ (해) ㉠은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

- 표현이다. ③ 역시 '해가 서쪽에서 뜬다면'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.
- 18) ① (해) ㉠은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,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물음은 아니다. 그보다는 시적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, 이러한 설의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①이다. ①은 단순한 의문문으로, 학생의 이름을 알기 위해 질문하고 있을 뿐이다.
  - 19)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별하겠다고 말하여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.
  - 20)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후,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.
  - 21) ② (해) 이 노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이별하겠다고 하여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. 즉,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여 이러한 일이 실현된다면 자기도 임과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, 이로 인해 자기는 임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.
  - 22) ⑤ (해) 이 노래는 임에의 영원한 연모의 정, 영원한 해로를 축원하는 사랑의 맹세,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로 해석될 수 있다. 2~5연의 내용에서 절대 이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, 6연에서 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지적 어조가 알맞다.
  - 23) ③ (해) <보기>에서는 한번 이별한 임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. 그래서 봄에 이별하고 가을이 되어서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혼자서 묻고 있는 것이다.
  - 24) ⑤ (해) ㉠~㉢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.
  - 25) ① (해) 시적 화자는 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. ①에서도 죽어서라도 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다.
  - 26) ② (해) 2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임과 이별할 수 있다는 발상을 보이고 있다. ②에서 돌을 쪼아서 암소를 만들고 그 암속에 임을 태워 보내겠다고 했으므로 임을 보낼 의지가 없는 것이다.